

명승 제33호 광한루원의 필지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Lots in Gwanghalluwon Garden(Scenic site No. 33)

이 원 호, 김 동 현, 김 재 응, 안 혜 인, 김 대 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Lee won-ho, Kim dong-hyun, Kim jae-ung,
Ahn hye-in, Kim Dae-Yeo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요약

본 연구에서는 광한루원 일대의 지적자료 분석을 통해 각 권역별 변화과정을 지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광한루 권역을 제외한 공간은 1930년대 이후 춘향각의 조성, 상업지구의 대규모 화재, 행정구역의 변경, 광한루원 확장·정비사업 등의 요인에 의한 지목의 변경, 지적의 합필 등을 통해 영역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날의 광한루원 영역을 규정하게 되었다.

I. 서론

광한루원은 조선 초기 조성 이래 많은 시인묵객들이 다녀간 명소이자 관아정원으로써 남원시 내에 핵심적인 장소였으며, 오늘날에도 역사문화관광지로써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요인으로 작용하는 역사문화자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역사문화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남겨진 역사의 자취가 현대적 특징이 첨가되고, 새로운 개발에 의해 조성 당시 원형의 모습과는 다른 토지의 속성을 형성하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문화자원의 존재 상태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발달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 이에 본 연구는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광한루원이 오늘날의 영역을 형성하기까지 진행되었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존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써 광한루원을 대상으로 지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문화재 지정구역을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고 그 일대의 문헌자료 및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당시의 신문기사 및 사진 등을 통해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III. 광한루원의 변화과정

현재 광한루원의 지정구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특성별 구분을 실시한 결과, 광한루원은 광한루와 호수, 오작교로 구성된 광한루 권역, 춘향각 및 비석군이 위치한

춘향각 권역, 완월정을 포함한 광한루 남측의 잔디광장 권역, 선취각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된 잔디광장을 포함하는 월매집 권역, 광한루 서측의 춘향관 권역으로 분류되었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기록을 토대로 광한루원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 관아정원의 요소에 해당하는 광한루 권역을 제외한 공간이 1930년 이후 추가적으로 조성되면서 평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광한루원의 권역별 공간구성요소의 조성시기

권역구분	공간구성요소	조성시기
광한루 권역	광한루	1434
	호수	1582
	오작교	1584
춘향각 권역	춘향각	1931
잔디광장 권역	완월정	1970
	잔디광장	1970
월매집 권역	월매집	1970
	선취각	1970
	초당	1990
춘향관 권역	춘향관	1992

1. 광한루 권역

광한루 권역은 1915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천거동 77-1번지에 해당하며, 호수가 위치한 천거동 78번지, 80-2번지가 1932년 대(垞)에서 공(公)으로 지목 변경 되었고, 1986년 78번지와 77-1번지가 필지가 합병

되었다. 이후 1986년, 1989년, 2014년 광한루원 주변의 추가적인 지적의 합필이 이루어졌으며, 1938년 67번지는 대(垔)에서 공(公)으로, 68-1번지는 전(田)에서 공(公)으로 지목변경 되었고, 1944년 89-4번지와 78-1번지가 대(垔)에서 공(公)으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토지이용의 관점 외에도 지리적으로도 광한루 권역이 광한루, 삼신산, 호수 등으로 규정지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춘향각 권역

1931년 건립된 춘향각이 위치한 쌍교동 198번지는 본래 광한루원 권역 외부에 위치한 지대로 1915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사유지로 주변이 민가로 들어서 있었다. 1974년 대(垔)에서 공(公)으로 지목이 변경된 후 개인 소유에서 남원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6년, 1989년 두 차례의 합필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으며, 같은 시기에 쌍교동의 5개 필지가 대(垔)에서 공(公)으로 지목변경이 되어 광한루원의 범위는 천거동에서 쌍교동까지 확장되었다.

3. 잔디광장 권역

1963년부터 계획된 광한루원 정비사업은 1970년대에 광한루원 경역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당시 광한루원의 남측부는 과거 우시장이 위치했던 천거동 187-1번지 일대는 1963년부터 시행된 광한루원 확장정비사업에 의해 1966년 그 소유권이 국유지(國)에서 남원시로 이전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시기에 광한루원 남측 시장 일대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상업지구의 대규모 이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1974년 남원군에서 해당 지역을 매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천거동에 위치한 11개의 필지가 대(垔)에서 공(公)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1986년,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천거동 187-1번지에 합필되면서 1970년에 수증누각인 완월정과 잔디광장, 정문인 청허부가 조성되는 등 광한루원의 권역에 포함되었다.

4. 월매집 권역

한편 광한루원 남서측에는 과거 춘향이 그네 뛰던 장소로 춘향이 살던 장소라 하여 월매집이 조성되어 있다. 월매집 일대는 과거 남원시장이 있던 곳으로 1970년 큰 화재가 일어나 폐허가 된 남원시장 대부분의 필지를 남원군에서 매입하였으며, 1985년에는 남영학교법인 소유인 110-1번지 또한 남원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광한루원 남서측 일대는 남원시의 광한루원 정비사업과 함께 1986년, 1987년, 1989년 세 차례에 걸쳐 총 60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통합되고 1990년대 담장을 구획함으로써 광한루원 권역 내에 포함되었다.

5. 춘향관 권역

광한루원에 근접한 서쪽 경역은 광한루원 경역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1985년에서 1986년 사이에 남원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남원시 금동이었던 약 23개의 필지는 천거동으로 행정 관할구역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대지에서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천거동 240번지에 춘향관이 조성됨에 따라 광한루원이 확장된 지역을 점유하여 현재의 모습을 형성하였다. 이는 광한루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음을 추정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은 현존하는 역사문화자원인 광한루원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권역을 구분하고 지적자료를 바탕으로 평면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한루 권역은 광한루 외에도 호수와 삼신산을 포함하는 지번이 합필되면서 지리적으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는 양상은 문헌분석에 의한 권역설정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춘향각 권역은 춘향각의 조성과 함께 지목이 변경된 후 합필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한루원의 권역이 천거동에서 쌍교동까지 확장되었다.

셋째, 잔디광장 권역은 과거 우시장이 위치하던 곳으로 1970년 화재 이후 남원군에서 매입함에 따라 완월정과 잔디광장 등이 조성되었다.

넷째, 월매집 권역은 과거 남원시장이 위치하던 장소로써 잔디광장권역과 함께 화재 이후 대규모 필지의 매입 및 합필을 통해 광한루원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섯째, 춘향관 권역은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광한루원 경역확장의 일환으로 춘향관의 조성 계기가 되었으며, 광한루원 서측의 경역을 점유하였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문헌에서 나타나는 시계열적 변화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당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과거 광한루원 일대에 해당하던 지역의 토지이용이 광한루원과 연계되면서 오늘날의 영역을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 [1] 기꾸치 도시오,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회, 서울, 1995.